◎ 프로그램

환영사 및 기조 연설

- Dr. Aries Arugay
  (CSCAP-Philippines 대표, Institute for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Philippines 소장)
- Mr. Julio Amador III (필리핀 외교부, 해양국장)

주요내용 : 본 회의 목적 및 성격, 그리고 순수 학자와 전문가 간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산호초 피해에 대한 문제 식별 및 보호방안 강구책을 모색하여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건의하는 절차를 설명.

세션 1 : 아·태 해역 지리적 환경과 해양환경 평가

- 사회 : Dr. Lan-Anh Nguyen (베트남 국립외교원, 남중국해연구센터 부소장)

- 발표 : 아·태지역 해양환경 지리성 및 생물 다양성: 산호초 피해 평가를 중심으로
  : Prof. Evgeny Kanaev (러시아 고등경제학교, 모스코바)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그리고 해운 등이 아·태 지역 산호초 환경 피해의 주요 원인이며, 일부 산호초 포획 활동도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해양산성화 현상을 향후 심각한 원인으로 고려해야 함.

- 세션 토의 : 자연재해 등 과학적 문제만을 다루기보다, 최근 동남아시아 근해에서의 인위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성 제기 (한국), 과학적 해결방안보다 ARF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관련 해결방안 모색 필요하며 (싱가포르),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일부 국가가 행하고 있는 산호초 피해를 역내 국가들이 무시하면 안 됨 (필리핀).

세션 2 : 아·태 해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 현상과 문제

- 사회 : Prof. Kwa Chong Guan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발표1 : 아·태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 산호초 피해 및 복원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 Prof. Edgardo Gomez (필리핀 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명예교수)

주요 내용 : 동남아시아의 소위 산호초 삼각지역(Coral Triangle) 해역에 대한 산호초 피해 및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교훈과 향후 전망 위주 발표.

* 산호초 삼각지역(Coral Triangle) 해역: 세계 산호초 76%, 15개 희귀종 산재, 세계 산호초 어류의 37%, 세계 홍수림 (Mangrove)의 51% 산재 등

- 발표2 : 중국 남방해역에 대한 산호초 보존 및 관리
  : Prof. Wentao Niu / Prof. Xinqing Zou
  (중국 샤먼 해양국 제3해양지리연구소 연구원, 난징대학교 해양지리 및 지리학 연구소 연구원)

주요 내용 : 1978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및 1998년 이래 추진된 주요 사업 소개. 16개 해양환경 보호 지역 사업 추진 내용 소개.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상황 및 지역 내 산호초 보호를 위한 기여 (예 :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기금 및 중국-인도네시아 해양협력 기금 등) 소개.

- 발표 3 : 아시아 동남아시아 산호초 현황 및 건의
  : Dr. Olof Linden (스웨덴 세계해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산호초 붕괴 현상은 심각함.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이용 국가 간 갈등, 관리 부실, 법집행 능력 부족 등의 4개의 주요 이슈 제기 및 일부 유럽 발틱 해 사례를 들어 해운 관리 및 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재원 마련 등 건의를 제시.

- 세션 토의 : 과학적 문제 제기 및 방안 강구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국). 연안 해역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원해에서의 산호초 붕괴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함 (필리핀).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안국과 이용 국가의 정부의지가 중요함. 중국이 연안 산호초 및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에 따른 환경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공가능성 문의(필리핀)에 대해 중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u>세션 3 : 아·태 해역 산호초 보호를 위한 지역적 다자 간 협력 방안</u>

- 사회 : Dr. Robin Warner (호주 울릉공 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 발표 : 아·태지역 해양환경 산호초 피해 평가 및 현상에 따른 역내 방안
  : Dr Robin Warner (호주 울릉공 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그리고 해운 활동 증가 등으로 발생되는 동남아시아 근해에서의 산호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97, 198, 199조에 따른 지구적, 지역적 협력을 기하는데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함. 특히 제199조 오염대비에 대한 비상계획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함.

- 세션 토의 : 실질적으로 역내 산호초 보호에 있어 국제법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이 실효적이질 않다는 평가가 있음 (호주). 이에 어업활동 제도화,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 및 자발적 협력 그리고 법집행의 강제성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주장함 (베트남).

세션 4 : 아·태 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국내법과 정책

- 사회 : 윤석준 박사 (대령(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발표 1 : 베트남 해양환경 보호 국내법과 정책 현황
: Dr. Lan-Anh Nguyen (베트남 국립외교원, 남중국해연구센터 부소장)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약 20개 국제법과 조약 당사국으로써 100개 이상의 국내법 또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한 예산, 전략기획, 연구 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특히 역내 오염방지 협약인 PEMSEA 등의 회원국으로 적지 않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국가는 주권(sovereignty) 행사에 중점을 두어 환경보호 보다는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발표 2 : 말레이시아 주변 해역에 대한 산호초 보존 및 관리
: Dr. Cheryl Rita Kaur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는 UNCLOS, CBD, Ramser 협약, MARPOL, OPRO, BOB 등의 역내 해양환경 보호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국내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밀레이시아의 특성으로 각 지방 연방정부와 중앙 연방정부 간 이견을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행동강령(action plan)을 제정하여 말레이시아

주변 해양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특히 국가정책-각 연방정부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간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발표 3 : 아·태 주요 지역 연안 공중오염 현황과 대책
  : Prof. Bevan Marten (뉴질랜드 웰링톤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주요 내용 : 이는 연안국과 연안국 인접 해양을 사용하는 사용국가(user states) 간 해양오염 문제 중 하나임. 기준이 문제인데 이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적 기준으로 나뉘어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보호의 의무를 각국들이 최선을 다해야 함. 이를 위해 재정 마련, 과학적 예측, 과학기술 적용 및 법적 일관성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

- 세션 토의 : 근본적인 문제는 당사국의 자발적 책임 수행임 (베트남). 이를 위해 각국은 누군가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함 (한국). 특히 각국은 선포된 해양환경보호해역 (MPA: Marine Protection Area)에 대한 자국의 의무와 권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됨 (필리핀). 이를 위한 상호화합(harmonisation) 그리고 표준화(standardisation)는 향후 각국이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임 (중국).

<u>세션 5 : 아·태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도전요인</u>

- 사회 : Ms Ma Carmina B. Acuna (필리핀 외교부 정책연구부 소장)

- 발표 1 : 하와이 주변 해양에서의 산호초 보호
  : Dr. Linda Paul (미국 하와이 CSIS 태평양 포럼 연구원)

주요 내용 : 아·태 지역 내 연안은 산호초 보존해역임. 하와이 근해가 대표적 사례이나, 환경오염으로 산호초는 물론 이 곳에서 자라는 어종의 오염도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선박폐기 처리와 빌지유 처리 등의 문제가 주목됨. 이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됨. 특히 산성화 해양으로 인한 산호초 훼손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함.

- 발표 2 : 역내 산호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안
  : Dr. Robin Warner (호주 울릉공 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주요 내용 : 유엔해양법협약 제123, 192. 194, 197조 및 206조를 강조함. 이를 구현하는 역내 다양한 해양환경보존 합의인 EBSAs, UN SDG 14, PEMSEA, SDS-SEA, CTI 및 기타 관련 부속서 등에 따라 각국은 잠재적 조사,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전세계 원유의 50%와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양오염보존은 중요한 현안이며, 남중국해 역시 연간 41,000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병목해역임. 이들 해역에서의 해양오염 방지와 유엔해양법협약 제 199조에 의거 비상대책 강구가 절실함.

- 발표 3 : 아·태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격차와 대응책
: Dr. Youna Lyons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주요 내용 : 역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레짐은 ASEAN, PEMSEA, UNDP, COBSEA, IOC-WESTPAC, SEADEF 등이 존재함. 그러나 이를 구현함에 있어 국제법적 격차, 비준상의 격차, 지역적 격차, 환경문제 인식 격차, 평가에 있어 격차, 감시활동에 있어 격차가 존재함. 이에 상호협력(consultant), 협조(collaboration) 그리고 해양경계문제(maritime disputes)에 있어 긴장을 극복해야 함.

- 세션 토의 : 재원 마련과 과학기술 접목에 있어 각국 간의 협력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 (한국). 이에 따라 전통적 협력 자세보다 더욱 적극적인 협력태도가 요구됨 (필리핀). 특히 과학자간 상호네트워킹에 따른 문제인식과 이를 정책입안자들이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요구됨 (호주, 뉴질랜드).

세션 6 : 종합토론

- 사회 : Ms Ma. Carmina B. Acuna (필리핀 외교부 정책연구부 소장)

- 발표자 : 각 세션 사회자

- 토론 내용 (각 세션 사회자 요약 내용 위주)

: 이번 연구그룹 결과는 과학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에 의한 track 2 차원에서의 과제를 식별하는 기회였음. 각국이 해양환경보존 특히 산호초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동의함. 특히 이번 회의 결과를 ARF에 보고하여

외교부만이 아닌, 해양환경관련 부서에서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개역할은 ARF 회의국의 외교부임. 점차 ARF 차원에서 EAS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일부 참가자(일본과 한국)는 자연재난 등의 자연(God-made)에 의한 훼손보다 인간(Man-made)에 의한 산호초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 특히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연구실장은 지중해에서의 해양환경오염 방지 사례를 포준으로 삼아 유럽 모델을 유엔환경보존기구가 중심이 되어 역내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차기 회의는 9월 첫 번째 주에 중국 칭다오에서 CSCAP-China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됨. 이번 회의 결과는 공동의장국에서 작성하여 각국 CSCAP 참가자에게 회람하여 차후 추인을 받을 예정임.